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of Early Adolescents in Schools with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김종운, 장인영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Jong-Un Kim(jongun21@hanmail.net), In-Yeong Jang(papatll@daum.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한 교복우사업 대상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중인 5~6학년의 남·여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세 가지는 자아탄력성, 심리적 가정환경, 정신건강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 모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환경변인인 가정환경은 개인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에 관계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적 함의측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중심어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심리적 가정환경 | 학교생활적응 | 자아탄력성 | 정신건강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of early adolescents in schools with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EWPP).

For this purpo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of 31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fifth and sixth grade in four elementary schools on EWPP located in Busan area. As the result of analysis, three major variable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turned out to be in the order of ego-resilience, home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and both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were confirmed to play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Since home environment as a psychological variable of adolescents from poor families have an effect on adaptation to school in connection with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s personal variable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strength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In addition, in terms of practical implications,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for alienated class can be practical policy alternative to mitigate social polarization.

■ keyword : |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 Adaptation to School | Ego-Resilience | Mental Health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1월 12일  
수정일자 : 2015년 0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2월 05일  
교신저자 : 장인영, e-mail : papatll@daum.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의 한 형태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교육복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 영역들에서 요구되는 총체적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있다.

학교는 가정만큼 영향력 있는 생활공간이며,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아동기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아동들은 유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3]. 따라서 영향력 있는 학교에서 교육적 불평등 없이 전인적 인성발달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들의 학교생활 모습은 학교생활적응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동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에 능동적이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이러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5]. 특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가정환경,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탄력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환경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6].

가정환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곳으로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고 성인으로 성장한 이유에도 대인관계와 사회관계 전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7].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교생활의 적응기제[8]가 되지만 가정 내

의 문제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원인[9]이 된다는 점에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환경 외에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10].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 적대감, 고립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11].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고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긍정적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12].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원만한 가정환경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원만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며 건전한 자아와 융통적인 사고로 자아가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개인의 자아와 밀접한 관련성을 두고 있다[13].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교생활을 잘 하는 반면, 가정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고 학교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14]. 이 밖에도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신체화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문제 상황에 대처기제를 갖도록 돕는다[15].

이상의 전개된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두고 있으며, 가정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감소시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과 개인적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족의 기능적 측면[16], 가족결손 및 해체로 인한 구조적 측면[17], 가족 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가족관계적 측면[18][37], 가족의 사회경제적 측면[19] 등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또 학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가족기능은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간의 애착[20], 부모의 양육형태, 부모-자녀 간의 관계[21]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등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매개요인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가정환경의 기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빈곤가정에 대한 연구보다는 일반가정의 청소년이 연구대상이 되어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가정의 초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알려진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을 매개로 설정하여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현재까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기존의 수혜적 입장의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검증해봄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와 서구에 소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4개교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초기 청소년 31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2014년 6월 11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 응답자료를 제외한 29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98)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89	63.4
	여	109	36.6
학년	5	141	47.3
	6	157	52.7
가족 형태	부모님과 거주	181	60.7
	부모님 중 한분과 거주	25	8.4
	조부모와 거주	16	5.4
	친척들과 거주	2	7.0
	여러 식구들이 함께 거주	47	24.8
아버지 학력	중졸	8	2.7
	고졸	8	2.7
	전문대졸	55	18.5
	대졸이상	72	24.2
	잘 모르겠다	155	52.0
어머니 학력	중졸	9	3.0
	고졸	11	3.7
	전문대졸	64	21.5
	대졸이상	70	23.5
	잘 모르겠다	144	48.3
경제력 수준	상(잘산다)	58	19.5
	중(중간이다)	223	74.8
	하(못산다)	17	5.7

## 2. 측정도구

### 2.1 심리적 가정환경 척도

본 연구에서 심리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정원식[22]이 개발한 가정환경진단검사를 남인숙[23]이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 중 심리적 과정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4개의 하위요인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이다. 전체 문항은 48개로써 검사는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아니다'는 1점을 부여한다. 역채점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하위요인의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의 성취, 자율, 개방, 친애성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0이었다.

### 2.2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용래[24]가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학교환경 10문항, 학교교사적응 10문항, 학교수업적응 8문항, 학교친구적응 7문항, 학교생활적응 6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다른 변인과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2점, '대부분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는 4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역채점 문항은 없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2.3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25]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S)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는 4점의 4단계 Likert식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을 합

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2.4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

본 연구에서 고시 준비생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선인[2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KGHQ(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30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0: 매우 그렇다, 3: 매우 아니다)로 측정되며, 4가지 응답에 대한 배점은 0-1-2-3으로 총점은 90점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일부 문항들은 역방향을 이루고 있어 채점과정에서 역채점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심리적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력,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Baron과 Kenny[27]가 제시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가정환경 전체는( $r=.472, p<.01$ )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 전체( $r=.712, p<.01$ )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전체( $r=-.552, p<.01$ )는 학교생활적응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1 심리적가정환경	-			
2 자아탄력성	.47**	-		
3 정신건강	-.34**	-.51**	-	
4 학교생활적응	.46**	.71**	-.55**	-
M	101.81	43.19	25.81	115.67
SD	8.33	7.77	14.95	24.02
skewness	-.73	-.38	.35	-.09
kurtosis	.91	1.26	-.25	-.41

\*\* p<.01

## 2.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정신건강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구분	B	$\beta$	t	F	R <sup>2</sup>
Constant						
학교 생활 적응	심리적 가정환경	.380	.132**	2.998	127.424**	.565
	자아 탄력성	1.634	.529**	10.929		
	정신건강	-.374	-.233**	-5.128		

\*\* p<.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진단 결과 공차한계 0.1이하 VIF 10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요인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및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력에 56.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고, Durbin-Watson는 1.892로 상관관계가 없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표 3]의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와 유의확률을 살펴보

면, 가정환경은( $\beta=.132, p<.01$ )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beta=.529, p<.01$ ) 역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beta=-.233, p<.01$ )도 학교생활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독립변인 중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영향을,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 3.1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F	R <sup>2</sup>
1	자아 탄력성	가정 환경	.44	.47	9.20***	84.72***	.22
2	학교 생활 적응	가정 환경	1.32	.46	8.92***	79.61***	.21
3	학교 생활 적응	가정 환경	.46	.16	3.53***	163.92***	.52
		자아 탄력성	1.96	.63	13.39***		

\*\*\*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가정환경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예측되어( $\beta=.47, p<.001$ ) 매개분석 1단계를 충족하므로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가설에 일치되었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이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환경의 적응력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지르

로( $\beta=.46, p<.001$ ) 매개효과의 2단계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과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beta=.63, p<.001$ )이 유의하면서도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beta=.46$ 에서  $\beta=.16$ 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자아탄력성은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obel test(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7.67, p<.01$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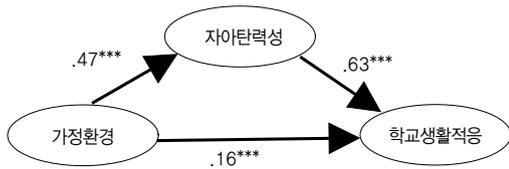


그림 1.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3.2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과 매개변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t	F	R <sup>2</sup>
1	정신 건강	가정 환경	-.61	-.34	-6.23***	38.82***	.11
2	학교 생활 적응	가정 환경	1.32	.46	8.92***	79.61***	.21
3	학교 생활 적응	가정 환경, 정신 건강	.88 -.71	.30 -.44	6.36*** -9.23***	93.76***	.38

\*\*\* p<.001

[표 5]와 같이 가정환경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예측되어( $\beta=-.34, p<.001$ ) 매개분석 1단계를 충족하므로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감소한다는 가설에 일치되었다. 2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이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지는( $\beta=.46, p<.001$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변인인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정신건강의 영향력( $\beta=-.44, p<.001$ )이 유의하면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 $\beta=.46$ 에서  $\beta=.30$ 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정신건강은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obel test(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5.16, p<.01$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동구와 서구에 소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남·여 5~6학년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주요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신건강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20][28]와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29][37],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30]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가정환경, 정신건강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생활적응은 이러한 세 가지의 예측변인에 의해 약 56% 설명되었다. 이 결과는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31][32]와 일부 유사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변인을 확장하여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세 가지 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가정환경은 그 자체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을 학교생활태도, 학업, 학교만족도로 보고 가정환경을 가

족배경과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그 영향관계를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가족관계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33]과 가족이 건강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14]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한 매개기능을 한다는 연구들[34][3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변인이므로 초기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인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증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조절능력과 함께 삶의 문제를 활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분석 결과, 정신건강은 심리적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가정환경은 학교생활적응에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건강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30]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과 공포심이 증가된다는 선행 연구[36]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 요소로는 자율성과 친애적 행동들로서 가족간에 자율적 태도를 가지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며, 가족간의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는 모습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는 정신건강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써 가족의 자율성과 친애성이 높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된 초기 청소년은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및 사회부적응과 관련이 적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탄력성, 정신건강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신장시키기 위한 상담방법을 모색할 때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부모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가족관계 경험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정서행동발달과 관련된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가 원활히 운영되면 학생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돕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학생은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초기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실천적 함의 측면에서 학교내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및 전문상담사의 역할강화로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중요하게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가족기능강화사업을 통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을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시키고, 의사소통의 단절과 가족 갈등이 심화된 가족은 상담을 통한 집중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지역 네트워크 연계역량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가족 문제해결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편의표집이라는 점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지역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후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환경적 특성을 초등학교생들이 지각

한 심리적 가정환경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정환경 변인 외에 경제적 수준 변인이나 학습환경 변인, 특히 이 시기는 또래친구에 대해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또래변인 등으로 환경 범위를 확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이라는 변인 외에도 진로동기나 사회적 지지 및 부모화 등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인으로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개인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을 함께 모색해 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력 방안과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 학교장 연수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 [2] 오경애, *또래 칭찬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 이주형, *MMTIC을 통해 평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우울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 안영복,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5] S. M. Nettles, O. C. Margaret, and J. O. Patricia, "School Adjustment in the early grades: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neighborhood parental, and child process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78, No.1, pp.3-32, 2008.
- [6] 이숙영,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7] 전효정, 이귀옥,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2호, pp.191-210, 2002.

- [8] 류경희,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95-213, 2004.
- [9] 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가족내 갈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17권, pp.79-106, 2005.
- [10] J. Gosselin, *Facteurs individuels, relationnels et systemiques lies a l'adaptation des membres de familles recomposee avec des adolesc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ntreal, 2007.
- [11] M. S. Shaniece, *Contextual and dispositional influences on low-incom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Orleans, 2007.
- [12] 정영순, 신지혜, “결혼 이민자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28권, pp.171-194, 2009.
- [13] A. Gregory and R. K. Sara, “Positive Mother-child Interactions in Kindergarten: Predictors of School Success in High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Vol.37, No.4, pp.499-515, 2008.
- [14] 민동일,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5] 강명희,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6] 김종운, 김지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041-1054, 2014.
- [17] M. L. Keeley and A. W. Brenda, “Family influences on treatment refusal in school-linke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Vol.17, pp.109-126, 2008.
- [18] 손현규,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9] M. Joussemet, K. Rrchar, L. Natasha, and L. Rene'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to children'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Vol.73, No.5, pp.1215-1236, 2005.
- [20] 조은정,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299-322, 2008.
- [21] L. D. Dubois, S. K. Eitel, and R. D. Felner,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relationships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No.2, pp.405-414, 1994.
- [22] 정원식,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1989.
- [23] 남인숙, *초등학생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정서기능과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4] 김용래, *정의적 특성과 그 선행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1993.
- [25]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pp.349-361, 1996.
- [26] 신선인,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사회복지학, 제46권, pp.210-235, 2001.
- [27]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28] A. Milevsky, S. Melissa, N. Sarah and K. Danielle,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Vol.16, pp.39-47, 2007.

- [29] A. Gregory and R. K. Sara, "Positive Mother-child Interactions in Kindergarten: Predictors of School Success in High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Vol.37, No.4, pp.499-515, 2008.
- [30] A. E. McLaughlin, *The Impact of early educational child care and the affectiv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on early adolescent mental health*,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7.
- [31] 권수정, 이현주,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188-195, 2014.
- [32] 정숙형,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3] 강우진,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 수행평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및 미래 아버지 역할 기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4]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의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393-408, 2004.
- [35] 최지영, 박경,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심리치료, 제7권, 제2호, pp.127-144, 2007.
- [36] 임성우, 가영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사회적응력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5권, 제1호, pp.29-39, 2007.
- [37] 이시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59-771, 2014.

저 자 소 개

김 종 운(Jong-U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상담심리) 박사
  - 2005년 ~ 2006년 : 인디애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방문교수
  - 2009년 ~ 2012년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200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학교상담, 아동청소년 상담심리

장 인 영(In-Yeong Jang)

정회원



- 2015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박사수료
  - 2005년 ~ 2007년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가족사업팀 사회복지사
  - 2007년 7월 ~ 현재 : 범일초등학교 교육복지사
- <관심분야> : 상담, 학교상담, 초등교육, 교육복지